

제 목	국 문	농촌지역 노인들의 치매유병률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영 문	Prevalence of clinically diagnosed dementia and its related factors in the rural elderly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정원영, 이정애, 이윤지, 김병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Won Young Jung, Jung Ae Rhee, Yun Ji Lee, Byong Woo Kim Dep't of Prev Med,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분 야	농촌지역주민의 건강	발 표 자	이 윤 지 (전공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0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 1. 연구 목적

농촌지역 노인들에서 치매의 성별, 연령별 유병률과 치매의 유형별, 정도별 유병률을 조사하고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므로서 치매의 예방 및 조기진단과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 2. 연구 방법

전라남도 곡성군의 1읍 10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각 각 2-3개마을씩 무작위로 집락표본추출하여 1단계로 1992년 7월에 60세이상 노인들에 대하여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지기능은 MMSE(Mini Mental State Examination)를 한국인에 맞게 보완한 MMSEK를 사용하였다. Screening 1단계 조사결과 경도치매인 MMSEK점수 23점이하인 사람 전부와 정상군인 사람 일부를 대상으로 1993년 8월에 2단계조사인 임상적인 조사를 시행하여 치매를 진단하였다.

#### 1단계검사(screening phase)

: 면담요원들이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내용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음주,흡연 등의 건강습관, 만성질환과 신체이상의 종류, 일상생활 활동능력 수준(level physical activity :이하 PA), MMSEK 등이었다.

#### 2단계검사(clinical phase)

: 경도치매에 해당되는 MMSEK점수가 23점이하인 251명과 정상대조군인 306명 중 33명을 대상으로 신경과,정신과 의사가 DSM-III-R의 정의에 따라 임상적 진단을 하였다.

통계적검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치매정도와는 chi-square test로, 변수들간의 상관 관계는 피어슨상관분석으로, 치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단계별 다변량회귀 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결과

1. 전체 노인들에서 치매의 유병율은 21.3%였으며 남자 10.7%, 여자 31.1%로 나타나 여자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p < 0.01$ ), 60대, 70대, 80대 연령별로 남자 4.1%, 16.7%, 50.0%, 여자 8.7%, 49.3%, 72.2%로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율이 증가하였다( $p < 0.01$ ).

2. 유형별 치매의 백분율은 퇴행성 65.6%, 혈관성 17.7%, 혼합형 10.4%, 알콜성 4.2%, 외상성 1.0%, 기타 3.1% 순이었으며 퇴행성 치매인 경우에는 연령의 증가와 함께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 < 0.001$ )

3. 치매 정도별 유병율은 경도 8.4%, 중등도 9.3%, 중증 3.6%였으며 여자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심하여졌으나( $p < 0.001$ ), 남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여성군, 교육수준이 낮은 군(이상  $p < 0.01$ ), 고연령층인 군, 문맹인 군, 배우자가 없는 군, MMSEK 점수가 낮은 군, 우울증지수(SDS)가 높은 군, PA가 좋지 않은 군일수록(이상  $p < 0.001$ ) 치매정도가 심하였다.

5. 단계별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PA, 연령, 문맹여부가 치매를 설명하는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38.2%였다.

### 4. 고찰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행된 치매의 연구보다 대상을 확대하여 군 전체지역을 조사하였으며 사용된 MMSEK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90.1%, 76.7%였다. 치매의 유병률은 전체 21.3%, 남자 10.7%, 여자 31.1%로 1991년 일 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인 전체 11.3%와 후에 조기치매일 가능성이 높은 치매의심군을 포함시킨 결과인 전체 15.8%보다 본 연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호별방문을 통해 비의존적 생활을 하는 부재자들의 검사참여가 낮았고 1단계 조사에서 MMSEK 23점이하가 차지하는 비율과 이중에서 치매로 진단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인하여 유병률이 높아진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치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정된 PA, 문맹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령구조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정도도 본 연구대상이 더 낮게 나타나 직접적인 단순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치매 유형별 분류는 퇴행성 치매가 가장 많아 다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1차 조사에서 대상에 포함된 29명이 단기간에 사망하였는데 이들에 대한 정확한 사망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그의 연구탈락자가 치매 유병률에 미친 영향을 평가할 수 없었다. 향후 우리나라 노인들의 정신보건에 관한 대책마련을 위해 치매의 정확한 유병률과 발병률을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